2020학년도 2학기

덕성튜터링 우수 튜터 활동 사례

유○연 '정치외교학기초'
Tutor (이끄미) 활동 사례

1. 팀 소개(튜터링 결성 동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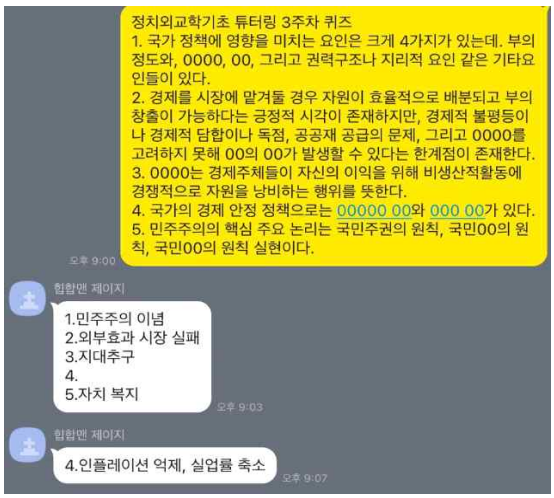
1학년 때 참여했던 튜터링에서 전공 공부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전공에 더욱 흥미를 갖고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저 또한 선배가 된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2019년도 1학기부터 꾸준히 튜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 1학년들을 대상으로 정치외교학에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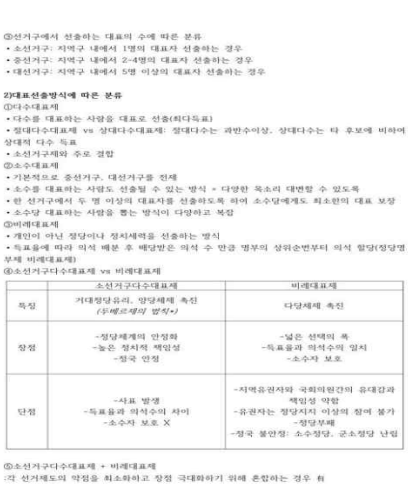
2. 튜터링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

튜터링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가장 첫번째 목표는 학부생인 튜티들이 정치외교학과에 관심 및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후에 흥미로운 과목은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정치학이 흥미로운 과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두번째 목표는 논술형 시험이 대부분인 학과이기 때문에 튜티들에게 논술형 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튜티 전원이 A 이상의 좋은 성적을 얻는 것입니다.

3. 우리 팀의 활동 사례(방법)

저희 팀의 경우 과목 특성 상 수업 내용을 반복하여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교안을 만든 후, 해당 교안을 갖고 ZOOM을 통해 튜터링을 진행합니다. 수업 내용을 다시 복습한 후 질문이 있는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토론 등을 진행하며 더욱 심도 깊게 수업 내용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퀴즈를 낸 후 선착순 1명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튜티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시험의 경우에는 논술형이었기 때문에 튜티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개별적으로 첨삭해주며 부족한 내용이나 구조 등을 다듬어주어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①소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에 따른 분류:
• 소선거구: 지역구 1곳에서 1명의 대표자 선출하는 경우
• 중선거구: 지역구 1곳에서 2~4명의 대표자 선출하는 경우
• 대선거구: 지역구 1곳에서 5명 이상의 대표자 선출하는 경우

2)대표선출방식에 따른 분류
①다수대표제
• 다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최다득표)
• 절대다수대표제 vs 상대다수대표제: 절대다수는 과반수이상, 상대다수는 타 후보에 비하여 상대적 다수 득표
• 소선거구제와 주로 결합
②소수대표제
• 기본적으로 중선거구, 대선거구를 전제
• 소수를 대표하는 사람도 선출될 수 있는 방식 = 다양한 목소리 대변할 수 있도록
•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여 소수당에게도 최소한의 대표 보장
• 소수당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
③비례대표제
• 개인이 아닌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선출하는 방식
•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후 배당받은 의석 수 만큼 명부의 상위순번부터 의석 할당(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④소선거구다수대표제 vs 비례대표제

	소선거구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특징	거대정당유리, 양당체제 촉진 *(뒤베르제의 법칙)*	다당체제 촉진
장점	-정당체계의 안정화 -높은 정치적 책임성 -정국 안정	-넓은 선택의 폭 -득표율과 의석수의 일치 -소수자 보호
단점	-사표 발생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 -소수자 보호 X	-지역유권자와 국회의원간의 유대감과 책임성 약함 -유권자는 정당지지 이상의 참여 불가 -정당부패 -정국 불안정: 소수정당, 군소정당 난립

⑤소선거구다수대표제 + 비례대표제
:각 선거제도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장점 극대화하기 위해 혼합하는 경우 有

유○연 '정치외교학기초'
Tutor (이끄미) 중간 성찰저널

1. 튜터로서 보람을 느낄 때, 또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튜티들에게 '덕분에'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2019년도, 2020년도 1학기 튜터링과 달리 이번 학기 튜터링은 처음 만나는 새내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더욱 잘 해내고 싶었고, 도움이 되어 정치외교학과에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튜터링을 진행하며 '튜터링 덕분에 이해가 가지 않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을 들을 때 '내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정치외교학이 흥미로운 학과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ZOOM을 통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튜터링을 하는 것이 튜티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지루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질문을 해주는 튜티들의 모습을 보며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 (마음이)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튜터링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은 튜티들의 반응을 직접 살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가 불가능해 ZOOM을 통해 튜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과목 특성상 문제 풀이보다는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과 설명이 주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상호 소통하는 방식보다 일방적으로 튜터링이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설명을 하다가도 튜티들의 표정이나 반응, 분위기 등을 보며 이해도나 참여도 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나치는 건 아닐까', '지루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비대면 튜터링을 진행함에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튜티들에게 최대한 의미 있고 즐거운 튜터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튜터링이 끝난 후 해당 주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퀴즈를 진행하고, 정답자는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튜터링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튜터링을 진행하며 가장 큰 변화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튜터의 경우도 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같이 시험 기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나를 믿고 튜터링에 신청해주고 참여해주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최대한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이는 곧 책임감으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치외교학 기초 강의는 기존에 없었던 신설 강의이기 때문에, 청강 신청을 해 수업 내용을 듣고, 이와 연결된 기존의 다른 전공 강의들과 내용을 비교하고 보충해가며 교안을 직접 제작하고 튜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튜터링을 성실하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선배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연 '정치외교학기초'
Tutor (이끄미) 최종 성찰저널

1. 한 학기 동안 튜터링을 어떻게 진행했나요?

정치외교학기초 튜터링은 COVID-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튜터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튜티들에게 튜터링을 녹음 및 녹화로 진행하는 것과 실시간 튜터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익명 투표를 하였고, 튜티 4명 모두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해 한 학기간 ZOOM을 통해 실시간 수업을 하며 튜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부터 진행되는 실시간 ZOOM 이전에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교안을 PDF 파일로 배부하여 튜티들이 교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ZOOM을 통해 교안을 함께 보면서 다시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튜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치외교학기초 강의는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시간 ZOOM이 끝난 이후 해당 주차의 내용 중 키워드를 뽑아 퀴즈를 진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논술 문제에 대한 대비와 중간고사 피드백 등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논술형 시험 대비의 경우 매주 튜티들에게 예시를 들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13주 차 강의였던 '근대국가의 등장과 국제정치 시대와 세계정치 시대'의 경우 튜티들에게 해당 내용이 논술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근대국가 형성의 과정과 국제정치 시대의 특징과 세계정치 시대의 특징을 비교하도록 나올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앞으로 본론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자 할 것인지 주장을 쓰면 되며, 본론은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 국제정치 시대의 특징 4가지, 세계정치 시대의 특징 4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논술형 문제의 예시와 답안 구성의 예시를 알려주었습니다. 매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튜티들이 보다 논술형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간고사 이후에는 튜티들이 작성한 중간고사 답안지를 개별적으로 첨삭해주며 기말고사에서 보완할 점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튜티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절대평가가 대부분인 상태로 1년간 학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대평가일 경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 제가 4년간 공부했던 교양과 전공의 자료를 사진 찍어 보여주며 알려주었습니다. 상대평가인 경우 오픈북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과목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방대한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2. 한 학기 동안 튜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튜터링 진행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비대면으로 튜터링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면으로 튜터링을 할 당시에는 수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튜터링 진행이 아주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ZOOM을 통해 진행하였는데,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업을 듣고, PPT를 다시 정리하고, 다시 교안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등 튜터링 외에 준비 시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ZOOM을 이용하는 것이 익숙하

지 않아 미리 준비하고 연습을 하더라도, 1-3주 차에 없었던 '40분 제한'이 4주 차부터 생기는 등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또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튜티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겪은 일들이고, 튜터님이 더 당황하셨을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어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튜티들이 학과생이 아닌 학부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학과생일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교수님들을 중점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내년에 정치외교학과를 오지 않을 수도 있는 학부생이라는 점에 있어서 튜터링을 진행하는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기존에 학과생을 대상으로 튜터링을 진행할 때에는 튜터링 과목이 아닌 다른 전공과목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공부방법이나 교수님들의 시험 특징을 정리해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생인 튜티들이 다음 학기에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첫 대학 생활을 비대면으로 하는 후배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었는데, 겹치는 부분이 적다 보니 그럴 수 없다는 점이 아주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점은 튜티들의 참여도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면인 경우에는 튜티들이 큰 리액션이 없더라도, 분위기나 표정 등을 보고 전반적인 이해도나 분위기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ZOOM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개개인의 이해도가 어떠한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이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해당 과목의 경우 저의 설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튜티들의 참여도를 활발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1-2주차를 진행하며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매주 튜터링을 진행한 후에 해당 주차의 내용을 퀴즈로 출제하고, 정답자 중 선착순 1명에게는 기프티콘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주차에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은 바로 다음 주에는 제외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골고루 튜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면으로 할 경우 튜터링의 장학금을 후배들의 커피나 밥을 사주는 경우로 많이 썼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던 찰나에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튜터링 주차에는 정답자 2명에게 학교 굿즈(차미리사 선생님 말씀이 새겨진 텀블러, 스티커 등)를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진행하니 튜터링이 끝난 후에도 튜티들이 적극적으로 퀴즈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다시 한번 핵심 내용에 대해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3.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배운 것(또는 알게 된 것,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튜터링을 진행하며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튜터링을 진행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이며, 덕성에서 선배로서 후배에 대한 책임감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튜터링을 준비하지만, 후배들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진행하며 회의감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튜티들의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내고 끝까지 책임감을 느끼며 한 학기의 튜터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튜티들이 학과생이 아닌 학부생이라는 점 또한 선배로서 후배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학과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나 스스로가 정치외교학과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튜터링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이며 덕성의 선배의 책임감까지 지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덕성의 100주년에 입학한 소중한 후배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만큼 후배들에게 학교와 학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했고, 결과적으로는 한층 더 성장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실시간 튜터링은 4학기 동안 튜터링을 진행하며 처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ZOOM 시간제한이나, 참여를 끌어 내는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튜티들의 말을 들으며 침착하게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었고, 또 긴 시간 동안 여러 방법을 고민하며 참여도를 증진하는 방법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차근차근 해결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튜터링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보람'입니다. 한 학기 내내 여러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고, 튜티들로부터 좋은 말들을 들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는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잘 해낼 수 있었을 텐데', '과연 후배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튜터링이 모두 끝난 후 한 후배가 "튜터님 덕분에 다른 시험에서도 답안 작성할 때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여러모로 불안정한 시기에 튜터님 덕분에 이만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대학의 첫 A+을 받았는데 모두 튜터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엄청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튜티들에게 주고자 노력했는데, 다행히도 튜티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 제가 노력한 만큼 튜티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간 것 같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 3번의 덕성튜터링과 1번의 글로벌튜터링에 튜터로서 참여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진행이 익숙해질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경험이 쌓이는 동시에 환경도 변화하였고, 그러한 환경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저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튜터링을 통해 배우고 느낀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 덕성에 대한 자부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진 '아동문학'
Tutor (이끄미) 활동 사례

1. 팀 소개(튜터링 결성 동기 등)

제가 1학년 때 처음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모의수업을 진행했을 때 너무 어려워서 선배들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받게 되어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튜티들에게 전공 공부와 모의수업 과제 시연에 도움을 주고자 튜터링 팀을 만들었습니다.

2. 튜터링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

우선 튜터링이 끝났을 때, 튜티들이 '튜터링 받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튜터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튜티들이 모두 목표한 학점을 취득하여 만족스러운 활동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이 튜터링이 목표입니다.

3. 우리 팀의 활동 사례(방법)

저희 팀은 주로 ZOOM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하여 튜터링을 진행합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강의 내용에 대한 PPT를 ZOOM의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공유한 후 강의를 진행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동화책 선정 기준과 동화구연방식 등 아동문학의 이론보다는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이와 같은 강의 내용은 강의 시간 외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하여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해줍니다.

*** 다른 팀에게 궁금한 점 / 튜터링 운영 과정상의 어려움과 고민 / 타 팀에 줄 수 있는 활동 Tip 등 :**
튜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튜티들과 '유아교육과에 온 이유'나 '대학생이 되면 하고 싶었던 일'등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나눕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튜티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토의를 해야 할 때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들을 깨주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 '아동문학'
Tutor (이끄미) 중간 성찰저널

1. 튜터로서 보람을 느낄 때, 또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튜터링 강의의 내용이 튜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되었음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정수리를 보이며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을 볼 때나 강의에서 사용한 PPT 파일을 공유할 것을 요청받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수업을 준비할 때 항상 튜티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려 노력하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1학년인 튜티들에게 난이도가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튜티들과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서로 만나고 도움을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 전공공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튜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2.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 (마음이)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첫 주차 튜터링을 진행하며 생긴 불편함을 주간학습보고서의 '소감' 칸에 작성하며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튜터링을 계획하며 튜티들과 강의 내용,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튜티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튜터링에서 튜티들의 마이크가 음소거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저 혼자 튜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튜터와 튜티는 물론, 튜티들끼리도 서로 만난 적이 없어 어색한 탓에 음소거를 해제하고 발표하기 어려운 튜티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편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튜티의 입장에서도 문제를 바라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언제든 음소거를 해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을 목표로 삼고,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위기가 풀어질 수 있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튜티들의 발표를 들으며 웃고 끄덕여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사소한 노력을 시도해본데다, 서로 얼굴도 마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튜티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강의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의를 계획하며 두 주차로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내용들이 한 주차에 끝이 나거나, 생각보다 준비한 부분이 짧아 토의 시간을 더 길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리 수업 시연을 한 번 진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3. 튜터링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튜터링을 위해 두 가지 변화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첫째, 매주 화요일에 동화책 10권을 찾아봅니다. 아동문학의 장르와 발달에 적합한 동화책의 예시를 들어주며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동화책을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학부생인 제가 각 예시에 알맞은 동화를 모두 알고 있는 것

은 아니므로, 시간을 내어 동화책의 예시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둘째, 즉각적인 소통을 위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성하였듯 비대면으로 튜터링을 진행하는데다가, 서로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어색하고 딱딱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튜터링을 시작하기 전,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내가 유아교육과에 온 이유', '20살이 되면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튜터링과 관련 없어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제가 지향하는 튜터링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토의나 발표 진행 순서를 생일이 빠른 순, 키가 제일 큰 순 등으로 해보자고 제안하여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이○진 '아동문학'
Tutor (이끄미) 최종 성찰저널

1. 한 학기 동안 튜터링을 어떻게 진행했나요?

첫째, '비대면 방식의 PPT 강의 및 토의'와 '대면 방식의 피드백'을 혼용하여 튜터링을 진행하였다. 1~5차 및 9~10차 활동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PPT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ZOOM의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PPT 강의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튜티들이 PPT가 있을 때 강의에 더 집중하였으며, 강의가 끝난 후에 PPT를 pdf 파일로 공유를 요청하여 복습하였다. 6차~8차 활동은 유아교육관 201호에서 대면 튜터링을 진행하였다. 활동을 계획하고 매체를 선정한 후에 도안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면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튜티들의 상황과 튜터링 내용에 따라 알맞은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둘째, 튜터링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튜터링에서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2차 활동에서 영유아를 위한 동화책을 선정하는 과정과 기준에 대한 PPT 강의를 진행한 후,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영유아에게 적절한 동화책을 선정해오도록 하였다. 이후 3차 활동에서 조사한 동화책에 대해 발표하면 튜터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했다. 또한 9차 활동에서 활동계획안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후,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활동계획안을 수정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튜티들이 이론적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에 적용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셋째, 튜티들이 원하는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튜터링을 시작하며, 튜티들에게 배우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에 튜티들은 아동문학과 관련하여 배우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질문하였고 이 중 한 차시의 강의로 다룰만한 것들을 튜터링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4차 활동에서 다뤘던 동화 구연의 절차와 태도, 8차 활동에서 다룬 테이블 동화, 9차 활동에서 다룬 활동계획안 작성법, 10차 활동에서 다룬 활동목표에 대한 내용 모두 튜티들이 제안한 내용이다. 튜티들이 진정으로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다루어, 도움이 되는 튜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하다.

2. 한 학기 동안 튜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튜터링을 진행하며 '일 방향적 튜터링'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힘들었다. 어떤 교수학습이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튜터링은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튜터링은 서로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튜티들 모두가 음소거를 한 상황 속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 가끔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또한 튜터가 질문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이 돌아오지 않고, 음소거를 해제한 후 통신 상태에 따라 4-5초 후에 대답이 돌아올 때도 그러했다.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배움을 이룰 수 있는 튜터링을 할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상호 소통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튜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유아교육과에 온 이유', '취미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고자 하였다. 또한 튜터링 시간 외에도

단체 메신저 방에서 자유롭게 Q&A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춰졌을 때 대면 튜터링을 진행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튜티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튜터링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하다.

3.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배운 것(또는 알게 된 것,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튜터링 7차 활동에서「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수업 계획안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9차 활동을 앞두었을 때, 튜티가 수업 계획안 작성 방식에 대해 알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그제야 7차 활동 전에 '수업계획안 작성 방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튜티들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수업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튜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적절한 난이도의 튜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점을 놓쳐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튜티들이 활동계획안 작성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해줘서, 적절한 내용을 강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직에 나가서도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학생과 소통하는 태도를 지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튜티들의 토의 진행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튜티들은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 하였다. 또한 긴 시간 토의가 이어져 지칠 때는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팀플이나 회의가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에는 지치거나 토의가 끊기곤 한다. 그럴 때마다 튜티들이 토의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전○미 '서양현대미술'
Tutor (이끄미) 활동 사례

1. 팀 소개(튜터링 결성 동기 등)

〈서양현대미술〉은 미술사학과 전공 강의 중 재수강 비율이 가장 높은 강의입니다. 여러 철학 담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시험 유형도 세 작품 비교 서술 등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튜티가 목표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튜터링을 신청했습니다. 저의 튜터링은 4명의 튜티와 휴학생 신분의 청강생 1명까지 총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작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견지하며 학문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튜터링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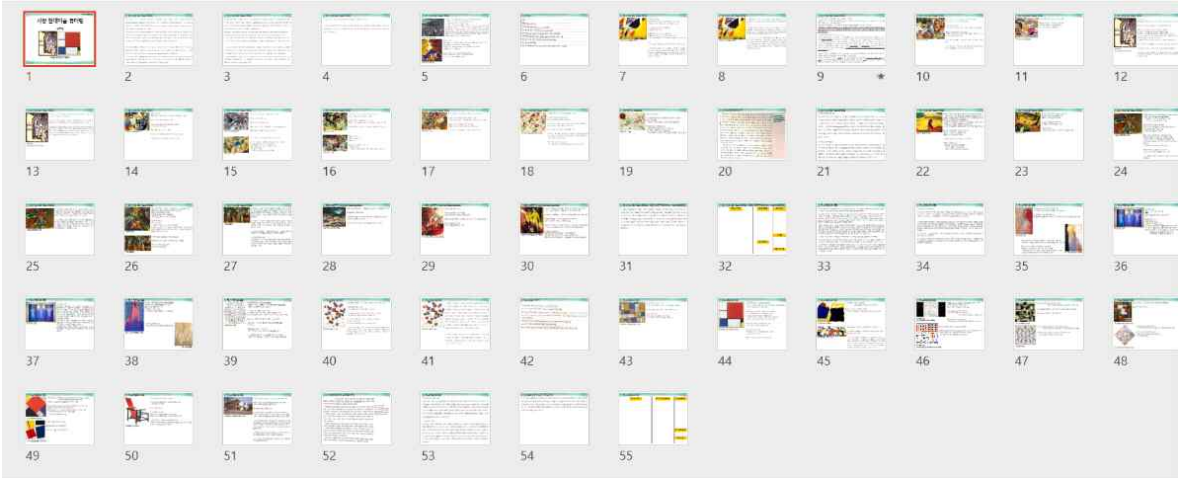
1차적으로 튜티 전원 목표 성적 달성하기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전공 강의 관련 도움 주기, 전공 관련 활동 및 자격증 정보 자료 제공이 있습니다. 활동 종료 후 튜티가 튜터링 참여했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족스러운 튜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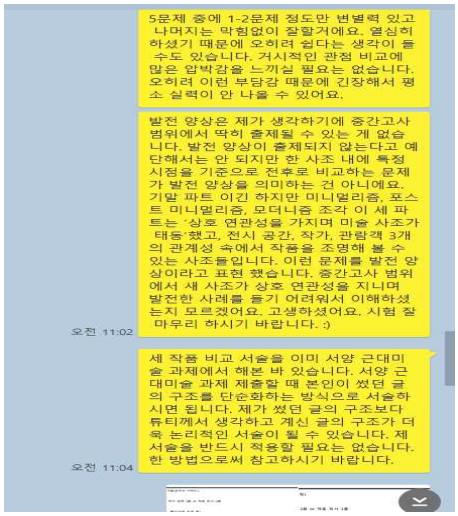
3. 우리 팀의 활동 사례(방법)

지난 학기에 〈서양근대미술〉 튜터로 활동했습니다. 온라인 튜터링으로 강의 녹음 전용 마이크를 구매했었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튜터링 강의안 제작에 차시마다 약 4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하계 방학에 미리 제작해두었습니다. 수업 내용을 반복하는 튜터링은 지양하기 때문에 참고문헌(단행본, 국내외 학회에 투고된 논문)을 통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강의안에서 "+)" 부분으로 따로 안내하여 심화 학습을 돕습니다. 제 튜터링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튜티보다 학습 성취동기가 높은 튜티가 심화 학습을 희망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튜티 성향에 따라 튜터링 강의안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튜터링은 정규 강의 들은 후 복습 차원으로 학습해야 도움이 되는데 튜터 선발 시기가 늦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튜티 모집을 완료하여 9월 둘째 주부터 튜터링을 진행하여 지금까지 6차시를 진행했습니다. 튜터 선발 이전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정규 강의와 동일하게 튜터링 진도를 맞추어 튜티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튜터링 활동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튜티는 블로그를 통해 PPT 녹화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 후 튜터링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 과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식으로 비교 서술을 해보는 것입니다. 각 문항마다 7분씩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여 개인 카카오톡으로 제출합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비교 논거 위주로 출제하여 시험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튜티의 서술형 답안지에서 보완할 점, 잘한 점, 오개념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드백과 함께 튜터링 강의안 PDF, 비교 서술 도판 리스트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과정에서 수업 내용 관련 질문이 있는 튜티에게 양질의 답변을 제공하고, 학습의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 다른 팀에게 궁금한 점 / 튜터링 운영 과정상의 어려움과 고민 / 타 팀에 줄 수 있는 활동 Tip 등 :**

녹화 영상을 공유하여 튜터링을 진행하는 분이 계신다면, 드라이브 주소 공유보다 블로그 업로드 방식을 추천합니다. 드라이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영상을 다운로드 후 시청해야 한다면 튜티 입장에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되지 않는 파일 형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튜티도 있어 블로그로 바로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블로그 검색 유입을 막아두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마이크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이크 없이 녹음하는 것과 마이크를 사용하여 녹음하는 것은 음질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미 '서양현대미술'
Tutor (이끄미) 중간 성찰저널

1. 튜터로서 보람을 느낄 때, 또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튜터링에 지원한 튜티가 "이번 학기에도 꼭 듣고 싶었어요.", "지원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튜터링에 참여해도 될까요? 꼭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주어 보람을 느꼈다. 본인의 튜터링 목표는 튜티의 A+ 획득과 더불어 학문에 호기심을 가진 튜티가 심화 학습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시험에 대한 팁보다는 수업에 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진 튜티가 대부분이다. 튜터링은 정규 강의에서는 시간의 한계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작품을 해석하거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튜티도 튜터링에 참여하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이번 학기에도 녹화강의, 출석 과제가 많은 학과 특성상 정규 강의만 따라가더라도 벅찰 텐데 모두 성실히 참여해주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2.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 (마음이)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학기에도 비대면 튜터링 튜터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학기는 녹음 전용 마이크, 노트북 등 필요한 장비가 구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 차시의 튜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의안 제작을 위한 3시간, 복습하는 1시간, 녹화하는 1-2시간 총 5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많은 양의 범위로 인해 11차시를 계획하고 있고 출석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비대면이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열심히 참여하는 튜티와 학문에 대한 애정으로 보람이 앞섰다. 어려운 점은 추석 연휴에 1시간 20분가량 녹화를 진행했는데 Window 업데이트로 인해 음소거 된 채 화면만 녹화되어 다시 강의를 녹화해야 했던 점이다. 가끔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가 힘들게 했지만, 그 외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3. 튜터링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PPT 영상 녹화를 위해 복습하는 과정에서 학문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튜터링을 위해 수업 필기했던 자료를 읽고, 심화 학습 자료와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튜터링의 출석 과제인 비교서술에 대한 피드백을 준비하며 튜티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배우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꼈다. 새로운 비교 논거를 제시한 튜티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지적인 성취감을 경험했다. 특히 튜티의 질문으로 후기 야수주의 작품을 유미주의의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는지 고민했던 순간과 새로운 조형성을 의도했지만, 정반대로 전통적 조형성을 논거로 제시했던 튜티와 합리적인 근거인가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울 수 있었다. 튜티의 출석 과제를 피드백하는 일에서 설렘을 느꼈다. '핵심 비교 키워드를 포함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을까? 타당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을까? 어떤 질문이 있을까' 등 어느새 기대감으로 과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튜터링은 사이버 강의로 무료한 일상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은 차시 동안 최선을 다하여 PPT 영상을 녹화하고 피드백하며 튜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전○미 '서양현대미술'
Tutor (이끄미) 최종 성찰저널

1. 한 학기 동안 튜터링을 어떻게 진행했나요?

튜터링 강의안을 제작하고, PPT 녹화 영상을 만들어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강의안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과 심화 학습 부분을 구분해서 제공하였다. 심화 학습 부분에는 수업 시간과 다른 방법론은 적용한 새로운 작품 해석, 작가의 최신 작품 동향, 다른 작품과의 비교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튜티의 경우 주차별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튜터링 과제를 카카오톡으로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았다. 과제는 서양현대미술 시험의 핵심인 비교서술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주로 출제되는 비교 키워드 중심으로 과제 문항을 구성하여 시험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그 후 1:1 피드백을 통해 비교서술에서 잘한 점, 부족한 점, 오개념 등을 알려주었다. 피드백과 더불어 튜터링 강의안 PDF 자료와 서술형 도판 리스트를 첨부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이끌었다. 실제 시험에서 답안지는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 정규 강의 과제는 어떤 방향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인 도움도 주었다.

2. 한 학기 동안 튜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1학기에 서양근대미술 튜터로 활동하며 마이크, 파일확장자 변환프로그램 등을 구매해 두었기 때문에 비대면 환경에서 모든 장비가 마련되어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또한 하계 방학에 튜터링 강의안 제작을 미리 해 두었기 때문에 학기 중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 강의와 진도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튜터 선발 이전 9월 둘째 주부터 튜터링을 시작하였다. 11주차로 진행되는 녹화영상은 추석 연휴를 이용해 마지막 영상까지 제작을 완료하였다. 연휴 새벽에 1시간 30분간 6주차(다다, 신즉물주의, 바우하우스) 녹화를 완료했었는데 음성이 들어가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녹화해야 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에는 허탈하고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두 번 녹화하며 더욱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 범위의 녹화 영상을 블로그에 미리 업로드해 두며 학기 중에는 개인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는 1:1 피드백에 더욱 정성을 쏟았다.

3.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배운 것(또는 알게 된 것,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교육 분야에 흥미를 느껴서 관련된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해왔다. 지역아동센터 영어 수학 교과목 지도 활동, 중학생 멘토링 활동, 시립도서관 영어 구연동화 스토리텔러 활동, 영어 동화책 작가 활동 등 그동안 해온 여러 경험이 튜터링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가장 좋아했던 전공과목인 서양현대미술로 튜터링을 진행하며 새로운 설렘을 느꼈다. 튜터링 활동은 기분 좋은 자극을 주며 성취동기가 되어주었고 더욱 학업에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튜티의 과제를 첨삭하며 배운 점도 많았다. 열심히 하는 튜티는 답안지에도 그 흔적이 잘 느껴져서 더욱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었다. 새로운 비교 논거를 제시한 튜티의 답안지를 읽으며 작품에 대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고 튜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 학습에도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다다에서 뒤샹의 작품이 후대에 영향을 주었던 것 또한 탈모더니즘의 맥락에서 읽어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전위 미술로 볼 것인가, 기교의 배제를 미니멀

리즘과 연결하고, 아이디어 측면을 개념미술과 연결해 탈모더니즘 맥락에서도 볼 것 인가" 등 여러 고민이 들었고 작품에 대한 다양한 맥락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답변을 해 주었다. 굉장히 귀여운 질문도 있었다. "빌르글레 작품이 어떤 면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드골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떼어내서 자신의 작품에 덧붙인 걸 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튜티가 있었는데 그 상상력이 귀여워서 한참을 미소 짓기도 했다. 또한 제출한 과제에서 매번 발전하는 튜티를 지켜보는 일에서도 보람을 느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비교 서술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튜티를 볼 수 있었다. 튜터로써 튜터링은 준비 과정부터 진행까지 보이지 않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이상의 보람과 열정을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튜티가 너무나 예뻤고 다른 전공 관련 프로그램도 튜티에게 제안하며 함께 참여하고 있다. 비대면 녹화 영상으로 튜터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다. 또한 튜티가 피드백 과정에서 혹은 튜터링 종료 이후 해주었던 말들도 큰 힘이 되었다. "어려웠던 과목 튜터링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 "저도 튜터링 덕분에 서양현대미술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 "튜터링 없었으면 어떻게 공부했을까 싶어요. 한 학기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튜터링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중간고사가 약간 두렵지만 튜터링 덕분에 무언가 성장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피드백도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서양현대미술은.. 정말 어렵네요 .." 등 튜티가 해준 말에서 감사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튜터링을 통한 학문적인 교류로 이번 학기도 즐겁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